



<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수다>

결과보고서

수다명	5인의 생존 예술가들		
키워드	생존/생업	신청자	최범식
프로젝트 결과	<p>본 수다는 서울문화재단 2020 0(Young artist), 15개의 서울. 도봉구 대표로 선정된 5인(극작, 도예, 연극, 시각미술, 무용)의 예술가들이 모여 진행하였습니다.</p> <p>첫 주제는 각자의 예술 장르에서 느끼는 일반인들의 선입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</p> <p>가장 먼저 장르 구분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점은 "예술인은 빈곤할 것이다."라는 선입견입니다. 대부분의 젊은 예술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, 주변의 비 예술인들이 그런 선입견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.</p> <p>도예- 도예를 전공하며 학생 때부터 일반인들이 느끼는 도예가에 대한 선입견들이 불편했다. 머리가 희끗한 장발의 중년의 남성, 산 속 장작 가마, 지독한 완벽주의 등 도예가의 이미지는 좋게 말해서 장인, 나쁘게 말해서 시대에 뒤쳐져 보이고 궁상맞아 보이는 사람이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 평소 억울함을 갖고 있었다.</p> <p>안무- 외모에 대한 선입견이다. "무용하는 사람은 키가 크거나 마를 것이다." 등의 미적 기대가 높다. 그리고 소위 아이돌 백댄서를 연상하는 분들이 많다. 아무래도 예술 안에서도 더욱 생소한 장르이기 때문인 것 같다.</p> <p>시각미술- 주로 설치,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, 대중들은 시각미술이라 하면 대부분 회화, 조각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런 스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. 특히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다 보니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를 많이 겪는다.</p> <p>연기- 무용처럼 외모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고, 연기는 특이나 더 가난하고, 배고프다 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. 이외에도 배우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할 것이다. 당연히 성격이 밝을 것이다. 등의 성격에 대한 편견이 있다.</p> <p>극작-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연극이라는 분야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이다 보니, 가치관이 뚜렷해서 기가 세거나, 누군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다.</p> <p>이야기를 나누고 느낀 점은 예술가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선입견이 아닌 걱정을 가장한 참견이었습니다. 어떤 직업이나 존재하는 선입견을 예술인에게만 너무 쉽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</p>		

두 번째 주제는 2020년 코로나 시대에서 예술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였습니다.

이 주제는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제 자체가 무색해졌는데,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적은 직업 중 하나는 무명의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.

도예-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예술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개인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. 그런 과정에서 이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한국의 예술인 복지에 대한 높은 처우를 피부로 느꼈다.

시각미술- 2017년 대학원 졸업 이후 꾸준히 다양한 지원 사업에 공모를 넣으며 기획서를 쓰거나 면접을 보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었다. 당시에는 대부분 탈락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원 사업이 다양해지며 그 때의 경험을 통해 실력발휘를 하게 되었다.

안무- 예술가도 프리랜서 직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 것 같다. 공연 예술은 원래 관객이 적었고 대중적이지 않아 언제나 불경기였는데,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느끼지 못했다.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.

극작-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전에도 창작활동이나 경제활동은 힘들었다.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어려워지며, 비 예술인들이 본인을 걱정해주는 일들이 많아졌다. 서로 걱정해주고 고민해주는 정서적인 교류가 많아졌다.

연극의 아날로그적인 공연 방식이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자연스럽게 언택트 방식으로 진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.

연기- 예술가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한다. 그것이 결국 노하우인 것 같다. 코로나로 인한 수 많은 복지 사업도 결국 그 동안 우리가 인내하고 예술가로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.

참여자 모두가 공감한 점은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지원 사업, 예술인 복지 등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고 그로인해 창작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

혜택을 받는 만큼 예술가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

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앞으로 다가올 ‘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술가로서의 역할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?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

연기- 연기는 꾸준히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대변하고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.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고 싶다.

시각미술- 코로나 이후 공공기관, 미술관이 문을 닫아 언택트 전시로 대체하는 추세이다. 직접 관람하는 것과 가상으로 관람하는 것에는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. 관객과 예술가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

그런 상실감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기엔 그저 까마득하기만 하다.

도예- 생소하면서도 일상에서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한다. 최근 간병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고단한 삶에서 잠시나마 치유 받는 모습을 보았고,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역시 흠을

만지는 과정으로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다.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.

극작- 최근 1인극을 기획하는 중 인데 유튜브 브이로그를 떠올렸다. 과거에는 예술이 특수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이다.

낮설고 생소한 예술장르를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하고 친근하게 설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. 이런 접근을 통해 일반인들도 창작하고 표현하는 것에 도전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치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

안무-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다. 관객이 직접 찾아가서 관람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창작활동으로 변화하게 되며, 안무 작업이 영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대중에게 친근한 장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. 일반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.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나 곁핍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수다를 마치고 느낀 점은 각 자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분야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나눌 수 있어 신선했고, 예상했던 것 보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.

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또래 예술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